

## 「多線的 社會發展論」에 관한 一考

——특히 韓國古代史方法論과 관련하여——

許 粹 烈\*

.....<目次>.....	
I. 序 言	IV. 韓國古代社會經濟史理論의 類型
II. 「多線的 社會發展論」의 研究方法	V. 結 語
III. 「多線的 社會發展論」에 관한 諸理論	

### I. 序 言

韓國古代史의 研究는 그 研究期間이 아주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成果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새삼 되풀이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古代史에는 아직도 未解決인 채로 남아 있고 또 論爭의 對象으로 되어있는 많은 問題들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實證的 研究의 장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古代史에 있어서는 史料가 극히 制限되어 있다는 것이 이 분야에 대한 研究를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障碍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古代史研究에 있어서는 資料不足이라는 難題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韓國古代史 뿐만 아니라 인접 각국의 古代史도 함께 고찰하며, 人類學, 考古學 등 인접 학문분야의 연구성과도 적극적으로 受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도 더 根本的으로 重要한 것은 바로 歷史學의 諸理論에 대한 確固한 理解와 方法論上의 省察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本稿는 이러한 觀點에서 既存의 社會經濟史學의 諸方法을 檢討하되, 특히 社會發展經路를 「多線的」(multilinear)으로 把握하려는 새로운 諸傾向에 焦點을 두어, 이것을 整理・紹介하고자 한다. 이 「多線的 社會發展論」을 紹介하려는 동기는 이것이 「單線的 社會發展論」에 대한 批判에 시작되고 있고, 이 「單線的 社會發展論」은 현재의 韓國社會經濟史學界에서도 거의 確固不動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研究에 조그마한

\* 서울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博士課程

보탬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念願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우선 「多線的 社會發展論」에 대한 用語의 意義를 밝혀 두어야 할 것이다. 「多線的 社會發展論」이란 用語는 물론 아직도 學術用語로 定着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最近 소위 「公式主義的 見解」<sup>(1)</sup>에 대한 批判이 주로 普遍性이라는 問題를 중심으로 광범하게 전개 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單線的인 歷史發展觀에 대한 批判도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單線的」(unilinear)이란 表現에 對應하는 것으로 「多線的」(multilinear)이란 表現을 使用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多線的」이란 用語는 歷史學에서 보다는 人類學에서 文化進化와 關聯하여 다소 廣範하게 普及되고 있는 것이다. 人類學에서 進化論의인 立場을 취하고 있었던 初期의 學者들 예를 들어 모르간(L.H. Morgan)이나 테일러(E.B. Taylor)가 「單線的 進化論」(unilinear evolution)에 입각하고 있었다면 最近의 스튜워드(J.H. Steward)의 입장은 「多線的 進化論」(multilinear evolution)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스튜워드」는 比較를 不可能하게 하는 相對主義나 個性記述을 배척하지만, 동시에 經驗的인 素材에서 너무 동떨어진 抽象論도 批判하여 말하자면 中間領域의 理論을樹立하려고 했다.<sup>(3)</sup> 마찬가지로 本稿에서 「多線的 社會發展論」者라고 一括해 부르는 論者들도 대개는 이러한 中間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多線的 社會發展論」者들은一般的인 理論이 歷史的 現實을 歪曲시키거나 慎意의이고 主觀的인 解釋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하여 歷史學에서 理論構成을 排除해 버리려는 個性記述의인 傾向도 批判하고 있지만, 동시에 西洋의 經驗을 토대로 하여 構成된 理論 즉 소위 公式을 圖式的으로 東洋에 適用하는데도 反對하고 있는 것이다.

(1) 「公式主義的」이라고 부르는 見解는 대개 다음과 같은 内容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社會는 몇개의 社會經濟의 構成體를 經過하여 前進의으로 發展해 간다」는 歷史認識方法을 더욱 具體化하여 人類社會에는 原始共同體的, 古典古代的, 封建的, 資本制的, 및 社會主義의 社會構成體밖에 없고 또 그것이 叙上한 바와 같은 序列에 따라 交替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 社會經濟의 構成體에는 固有한 生產樣式이 있기 때문에 이 社會經濟의 諸構成體의 數와 序列를 生產樣式이란 概念으로 代置하여 使用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社會이든지 간에, 이 構成體의 序列이 뒤짚어 지거나, 이 밖의 다른 社會構成體로 發展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어떠한 公式主義의 見解에 立脚하여 아시아 古代社會를 分析하려는 경우에, 그 社會는 前資本主義의인 어떤 社會構成體로 되지 않을 수 없고, 필경 古典古代의인 社會構成體인가 혹은 封建制의인 社會構成體인가를 밝히는 問題가 주요한 課題로 되었던 것이다.

歷史發展의普遍性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意味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多線的 進化論」(multilinear evolution)이란 用語는 스튜워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스튜워드에 의해 代表되는 것이다(R.L. Carneiro, "The Four Faces of Evolution," in J.J. Honigmann, ed., *Handbook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Chicago, 1973, p.101 參照).

(3) Julian H. Steward, *Theory of Culture Change: The Methodology of Multilinear Evolu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5, pp. 18—19 參照.

## II. 「多線的 社會發展論」의 研究方法

종래의 公式主義的인 見解에 대한 批判으로서 등장한 「多線的 社會發展論」의 研究方法을 뚜렷이 特徵지우기 위해서는 우선 이 양자사이의 研究段階上의 差異點과 共通點을 밝히는 데 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써 公式主義的 見解가 옹호하려는 것이 무엇이며, 「多線的 社會發展論」이 批判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주의해 두어야 할 것은 이 양자의 견해 모두가 다 同一한 方法論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양자의 研究段階上의 差異點과 共通點을 논하기 전에, 이 方法論이 어떠한 構造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이들 양자의 견해가 의거하고 있는 方法論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方法이 立體的으로 結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第一의 方法은 「實在的이고 具體的인 것(das Reale und Konkrete)에 대한 混沌된 表象으로부터 出發하여, 分析的으로 보다 抽象的이고 單純한 概念으로 나아가는 方法이다. 第二의 方法은 보다 抽象的인 것에서 시작하여 具體的인 것으로 接近해 가는, 다시 말하자면 第一의 方法과는 逆順을 취하는 方法이다. 이 第二의 方法에서는 각研究段階마다 單純化를 위해 設定되었던 前提들이 하나씩 除去되고, 이에 따라 理論이 包括하고 說明하는 現實的인 諸現象의 範圍가 擴大되어 가는 것이다.<sup>(5)</sup>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具體的인 것」이라는 말이 두가지 意味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즉 出發點으로서의 「實在的이고 具體的인 것」(das Reale und Konkrete)이라는 意味와 到達點으로서의 「精神的으로 具體的인 것」(ein geistig Konkretes)라는 意味가 그것이다. 前者は 思考以前의 實在物이고, 思考의 產物은 아니다. 그러나 後者は 분명히 思考의 產物이다. 즉 「具體的인 總體는, 思考된 總體(Gedankentotalität), 하나의 思考된 具體物(Gedanken Konkretum)로서 實제로 思考의 產物이고, 概念作用(Begreifen)의 產物」인 것이다.

(4) 이 方法論은 원래 「政治經濟學의 方法」이라는 標題하에서 說明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政治經濟學의 方法에 대한 論議는 그 자체로서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社會全體 혹은 社會의 變化過程의 起動力이 發見될 수 있기 때문에 重要한 것이다. 따라서 이 方法은 곧 歷史學의 方法으로 轉換되더라도 아무런 質이 없을 것이다.

(5) 스위지(P.M. Sweezy)의 說明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近代理論家들이 「段階的 接近法」이라 부른 方法을 有用한 것이라 보고 이 것을 實行했다는 것이다(P.M.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1956, p. 11 參照).

「具體的인 것」이 이와 같은 두가지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事實과 理論사이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지만, 全體的인 方法論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는 이 方法論이 두가지의 段階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뜻하고 있다. 즉 歷史學이란 側面에서 보면 歷史認識에 관한 問題를 취급하는 段階——예컨대 「社會는 몇개의 社會經濟的 構成體를 經過하면서 前進的으로 發展」해 나가고, 그 變化의 起動力으로서 生產諸力과 生產關係의 內的矛盾을 指摘하는 段階——와 이러한 基本的인 歷史發展에 대한 認識을 토대로 하여 좀 더 具體的인 内容을 담고 있는 理論——예컨대 生產樣式 혹은 社會經濟的 構成體의 數의 發展序列을 確定한다든가, 각 社會經濟的 構成體의 固有한 性格을 規定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意味에서의 理論——을 樹立하고, 이 理論을 다시 適用하여 總體的인 構造속에서 表象된 諸現象을 解明하는 段階가 그것이다. 따라서前述한 第一의 方法은 바로 前者에 대응하는 것이고, 第二의 方法은 後者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方法論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두가지의 方法——즉 第一의 方法과 第二의 方法——이 서로 不可分의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어 실제로는 分離하여 論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두 段階로 나누어 고찰하려는 까닭은, 비록 同一한 方法論하에서 構成된 理論이라 할지라도, 그 理論의 演繹對象이 되는 具體史가 달라짐에 따라 여러가지 類型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컨대 公式主義의 見解와 「多線的 社會發展論」은 모두 同一한 方法論體系 즉 第一의 方法 및 第二의 方法을 包括하는 全體的인 方法論을 그대로 追從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真正한 의미에서의 歷史認識에 관한 方法 즉 第一의 方法의一般的인 結論을 그대로 容認한다는 점에서도 共通의이다. 그러나 第一의 方法에서 第二의 方法으로 轉換하면서 이 양자사이의 見解差異가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第二의 方法에로의 轉換에 따른 양자사이의 見解의 分化를 논하기 전에, 이 양자 모두가 共通的으로 承認하고 있는 第一의 方法의 結論을 그前提로서 摘記해 두는 것이 앞으로의 論議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叙述이 가장 明確하고 壓縮된 摘要가 될 것이다. 즉

나의 研究에 있어서 簡單히 되었던一般的 結論은 다음과 같이 定式化할 수 있다. 人間은 그들 生活의 社會의 生產에 있어서, 一定의, 必然의인, 그들의 意志로 부터 獨立의인 諸關係, 즉 그들의 物質的 生產諸力의 一定한 發展段階에 대응한 生產諸關係에 들어간다. 이들 生產諸關係의 總體는 社會의 經濟的 構造를 形成한다. 이것이 實在的 土臺이고, 그 위에 하나의 法律的 및 政治的 上部構造가 성립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一定한 社會의 意識

形態가 대응한다…… 社會의 物質的 生產諸力은 그 發展의 어떤 段階에서, 그들이 그때 까지 그 内部에서 運動해 온 既存의 生產諸關係와, 혹은 그 法律的 表現에 불과한 所有諸關係와 矛盾하게 된다. 이들 諸關係는 生產諸力의 發展諸形態로부터 그 框架으로 一變한다. 그때 社會革命의 時期가 시작된다. 經濟的 基礎의 變化와 함께 巨大한 上部構造 全體가 혹은 서서히 혹은 急激히 바뀐다.

이와 같은 一般的 結論을 前提로 하더라도 第二의 方法에 따른 具體的 理論樹立段階에 가서는 여러가지 對立의인 見解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미 본바와 같다.

「多線的 社會發展論」者들은 公式主義의 見解를 批判하기 위한 第一聲으로서 우선 公式主義의인 見解가 支配的 理論으로 된 原因부터 檢討하기 시작한다. 그 原因으로서는 첫째, 近代史學은 종래 대단히 西洋中心의인 構想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은 構想에 의해 아시아社會의 後進性이나 停滯性이 說明되곤 했다. 이것에 대한 當然한 反動으로서 東洋諸國과 西洋諸國의 發展의 一般的 法則性을 全力を 다해 強調하려는 傾向이 우세하게 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公式主義가 確立될 당시에는 史料면에서의 基盤이 대단히 狹隘했고 따라서 하나의 一般的의 理論을 樹立하기에는 不充分한 점이 많았다.

公式主義의 見解가 支配的인 通說로 된 原因을 이와 같은 두가지로 指摘한 뒤 그들은, 公式主義의 見解가 가진 缺點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列舉하고 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公式의 다음과 같은 缺陷이 討論 중에서 명확하게 表面化되었 다. 즉 그것은 개개의 諸民族의 社會形態의 多樣性과 發展의 不均衡을 조금 밖에 考慮하지 않았던 것, 歷史過程의 主要한 「코오스」를 個個의 諸國이나 諸民族의 歷史와 同一視한 것, 諸構成體의 交替하는 抽象의인 公式을 世界史의 具體的 內容과 混同한 것, 世界史의 過程의 單一性과 統一性을 단순한 借用이나 傳播의 所產으로 약간 單純化시켜 理解한 것등이다.」<sup>(6)</sup>

公式主義의 見解가 가진 이러한 缺點들은 곧 바로 公式主義의 見解에 대한 批判으로 연결되었다.

「一般的 諸〈카테고리〉의 體系는 科學의 理論의 基礎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具體의인 研究가 發展함에 따라 科學은 完全한 것으로 되어 간다. 이것은 歷史科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歷史科學의 많은 一般的 概念이나 表象의 形成은, 주로 과거의 유럽大陸을

(6) L.V. Danilova, 「重要한 問題에 관한 討論」, (福富正實編譯, 『アジア的生產様式論争の復活』, 未來社, 1969, p.156)

中心으로 하는 비교적 制限된 史料에 基礎를 두고 시작되었다. 그 때문에 歷史的 研究가 深化되고 擴大되어 왔을 때, 약간의 一般的인 <카테고리>의 再檢討와 正確化에 관한 문제が 불가피하게 생겨나온 것은 아주 當然한 것이다. 그와 함께 事實資料의 集積은 이것을 體系化하고, 具體的 現實의 多樣性에 意味를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을바른 類型學을 마무리 짓는다는 課題를 提起하고 있다.」<sup>(7)</sup>

이와 더불어 다니로바(L.V. Danilova)는 東洋社會의 特殊性을 普遍性 속에 매몰시켜 하 나의 例外的인 혹은 亞流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다.

「階級社會는 繼起的으로 交代하는 세개의 諸構體——奴隸制的, 封建的 및 資本制的 諸構成體——를 經過한다는 公式을 承認하는 것이 唯物史觀의 除外될 수 없는 一部分이라고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다. 公式으로부터의 偏差는 모두, 特殊한 歷史的 諸條件에 의해 起こる 例外로서 看做되어 왔다. 그러나 신은 例外나 偏差가 常則보다 많았던 것이다. 예를 들면 世界 大多數의 諸民族은 採取形態로서의 奴隸制를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奴隸制的 構成體를 經過하지 않았다는 것은 立證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8)</sup>

나아가 레파다(U.A. Revada)는 人類全體에 있어서는 單線(unilinear)의 社會經濟的 諸段階만이 存在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通說의인 命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世界史의 時代區分에 있어서 單線의인 公式에 대한 批判은, 通說의인 公式이 完全히 適用되는 것은 地中海 및 거기에 접하는 諸地方史에 대해서 뿐이라고 지적한 論者들에 의해서도 支持되었다. 地球의 여타 諸地域에 있는 諸民族의 歷史는 그 歷史的 發展에 있어서 极히 重要한 差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sup>(9)</sup>

이와 같이 單線의인 公式을 否定한다는 것은 公式主義的 見解를 아시아社會에 適用함에 있어서 그 밀바탕에 깔려 있는 중요한 假定, 즉 人類社會의 經驗이 普遍性을 가지고 있다는 假定을 否定하는 것으로 된다. 「人類는 起源을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途程度도 本質的으로 하나이고, 모든 大陸에 있어서 각각이기는 하지만 齊一의인 經路를 밟아 나아가고, 人類의 모든 部族 및 民族에 있어서 极히 한가지 모양으로 同一進步의 狀態에 이르렀던」<sup>(10)</sup> 바의 普遍性을 否定하는 것으로 된다.

(7) N.F. Kolesnitskii, 「初期階級的 諸社會의 약간의 典型的인 特徵點과 獨自의인 特徵點에 대하여」, 上揭書, p.253

(8) L.V. Danilova, 上揭書, p.153

(9) L.V. Danilova, 上揭書, p.153

(10) Lewis H. Morgan, *Ancient Society or Researches in the Lines of Human Progress from Savagery through Barbarism to Civilization*, 1877, 序文.

실제 「多線的 社會發展論」者들은 自然의 및 地理의 環境을 檢討함에 의해, 아시아社會의 生產樣式의 獨自性을 強調하고 이에 따라 普遍性이라는 假定을 批判하려고 試圖하고 있다. 구워가는 生產過程의 形態에 영향을 주는 生產力의 一構成部分으로서의 地理的 環境을 깊이 研究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紧要하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는 東洋에 있어서 自然的 諸條件의 性格이, 古典古代의 그리스와 비교하여 獨自의인 型의 生產關係를 創出하도록 促進한 것은 아닐까라고 叙述하고 있다.

### III. 「多線的 社會發展」에 관한 諸理論

종래의 公式主義의인 解釋를 아시아 社會에 適用하는 문제를 둘러싼 贊反兩論이나, 아시아社會의 性格에 대한 여러가지 論議는 소위 「아시아的 生產樣式」論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아시아社會를 취급하는 理論類型 혹은 「多線的 社會發展論」의 類型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아시아的 生產樣式」論爭의 展開過程을 우선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的 生產樣式」論爭은 1920年代 中國革命의 實踐的 課題과 戰略問題를 중심으로 일어난 見解의 差異에서 發端되어, 1931年에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主題로 한 大討論會가 開催되었고, 1930年代 末에 이르러 暫定의in 結論에 의해 이 논쟁은 일단락 되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의 논쟁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마잘(L. I. Madjal), 코킨(M.D. Kokin), 파파얀(G.K. Papayan), 코바레브(S.I. Kovalev), 요르크(E.S. Yoruk), 고데스(M.S. Godes), 스트루베(V.V. Struve)등의 解釋이다.

마잘은 「아시아的 生產樣式」의 唯一한 獨自의 指標로서 私的 土地所有의 缺如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私的 土地所有가 缺如된 아시아社會에서는 專制國家가 官僚機構에 의해 直接生產者인 共同體員을 摧取하며 地代와 租稅가 一致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摧取機構는 東洋諸國에서 特別하게 발전된 經濟的 機能 즉 人工灌溉등의 公共事業에 대한 필요에서 形成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sup>(11)</sup>

코킨과 파파얀은 周代社會가 「아시아的 生產樣式」에 기초를 둔 社會임을 立證하려고 試圖했다. 그들에 의하면 井田이라는 隣人共同體와 그것을 摧取하는 官僚機構, 地代와 租稅의 一致, 國家에 의한 土地領有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아시아的體制의 外觀上 指標로서 현저한 中央集權化를 둔 뒤, 周代는 보통 規定되고 있는 것과 같은

(11) L.I. Madjal, プロ科譯, 『中國農村經濟研究』, pp. 6—15参照

「古典的 封建制度」의 時代가 아니라 中央集權的인 「아시아的 國家」의 時代라고 못박고 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이러한 社會組織의 發生原因으로서 地理的 要因 즉 人工灌溉 등의 要因을 說明하는 것이다.<sup>(12)</sup>

요르크와 고데스의 입장은 이것과는 判異하다. 우선 그들은 古代中國에 있어서 人工灌溉의 役割이 그렇게 重要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요르크는 『詩經』을 分析함으로써 周代社會에 이미 財產上의 不平等과 摧取가 存在하고 있었음을 立證했다. 나아가 奴隸나 기타 動產의 贈與 뿐만 아니라 土地의 贈與도 證明하고 있는 青銅器의 銘文으로 부터 土地에 대한 皇帝의 所有權이 名目的인 것이었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古代中國의 中央集權에 대한 見解에서도 이들의 立場은 코킨이나 파파얀, 마잘등과 다르다. 즉 古代中國에서는 中央集權化가 存在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 中央集權化는 不安定한 것이며 政治的崩壞로 交替된다는 것을 強調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요르크는 現物租稅(貢租)와 勞動義務(賦役)가 存在하는 周代社會를 封建制度의 一變種으로 規定하였다. 고데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共同體形態로 原始的 關係가 殘存하고 階級國家 및 從屬制度의 表現으로서의 專制國家가 存在한 古代中國社會를 封建制와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sup>(13)</sup>

코바레브는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承認하여 先古代의이고 獨自의인 生產樣式으로 보아 아시아의——古代의——封建의——近代資本主義의이라는 네개의 生產樣式은 繼起의인 發展系列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시아的 生產樣式」은 階級社會의 一種이고, 이 때의 支配階級은 國家에 의해 組織되고 生產手段을 集團의으로 所有하고 原始的 農村共同體를 集團의으로 摧取하며 地代에 의해 生活하는 特權集團인 것이다. 그 뒤 그는 이러한 段階說을 포기하고 上古의 東洋에서는 奴隸制의 特殊한 變型이고 中世 東洋에서는 封建制의 아시아的 變型이라는 입장으로 취하게 된다.<sup>(14)</sup>

코바레브는 이 「아시아的 生產樣式」은 封建制나 資本制의 生產樣式과는 달리 보다 높은 發展段階로 移行하기 위한 前提條件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하여 停滯的인 立場에서 있다. 한편 코킨이나 파파얀은 그들이 立證하려한 「아시아的 社會」가 어떠한 歷史的 地位에 있는 가에 대해 明白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으며, 대개 이 社會가 奴隸制社會와 並列的으로 發展한다는 프레하노브(G.V. Plehanov)의 解釋를 支持하는 傾向에 있었다.<sup>(15)</sup>

1920年代와 1930年代 初의 論爭을 綜合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傾向이 눈에 띈

(12) V.N. Nikiforov, 福富正實編譯, 前揭書, pp.136—141 參照.

(13) V.N. Nikiforov, 福富正實編譯, 上揭書, pp.141—144 參照.

(14) 鹽澤君夫, 『アジア的生産樣式論』, 御茶の水書房, pp. 14—15 參照.

(15) V.N. Nikiforov, 福富正實編譯, 前揭書, pp. 139—140 參照.

다. 첫째로,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獨自의인 生產樣式으로 確立하려 했던 마찰, 코킨, 파파얀 등의 試圖가 失敗했으며, 요르크, 고데스 등의 封建制 變種說이 有力하게 되었다. 둘째, 「아시아的 生產樣式」의 問題領域이 점차 古代로 거슬러 올라가는 傾向이 있었다. 특히 後者의 傾向과 관련하여 스트루베는 이것을 東洋에 있어서 奴隸制社會라는 構想을 하게 되었는데, 이 構想은 그 후 대부분의 論者들에 의해 基本的으로 採用되었으며, 1939年『資本制生產에 先行하는 諸形態』라는 草稿가 발견되고 이 草稿에서 소위 「總體的 奴隸制」(allgemeine sklaverei)란 用語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解釋는 한층 더 공고한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아시아的 生產樣式」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벌어진 후에 다시 종래의 西洋史에 있어서支配的 見解였던 原始共同體——奴隸制——封建制——資本制의 生產樣式의 繼起的 段階說이 本來의 位置를 굳하게 되었으며, 아시아의인 特殊性은 그 獨特한 地位를 否認당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프랑스의 슈레까날(Suret-Canale), 빠랭(Ch. Parain), 봄(P. Boiteau), 고드리에(M. Godelie), 쉐노(J. Chesneaux)등의 問題提起와, 이 問題에 대한 바르가(E.S. Varga)의 再檢討要請은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둘러싼 論爭을 다시 活潑히 再開시킨 直接的인 要因이 되었다.

우선 바르가는 戰前 한때에支配的 見解였던 封建制의 一變種으로서의 「아시아的 生產樣式」論에 대한 批判을 始作했다. 그는 만약 「아시아的(東洋的) 生產樣式과 서유럽에서 存在했던 古典的 封建制度를 科學的 抽象物로서 純粹한 形態로 表象하고, 이 兩者를 比較・對照해 보면, 問題로 되는 것은 서로 다른 上部構造를 수반하는 서로 다른 두개의 生產樣式임이 明白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시아的 生產樣式」과 封建的 生產樣式의 根本的 差異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하고 있다. 즉 「아시아的 生產樣式」아래에서는 가장 중요한 生產手段인 土地가 國家財產인 것이다. 古典的 封建制度下에서는 土地는 土地領有者인 封建領主의 財產인 것이다. 「아시아的 生產樣式」하에서는 國家가 直接生產者에 의해 生產된 剩餘生產物(租稅形態를 취해 나타나는 地代)의 唯一하고 第1次의인 占有者이다. 摧取階級은 모두 國家를 통해 그 不勞所得을入手한다. 「아시아的 生產樣式」下에서는 國家가 住民生活의 死活을 결정하는 중요한 機能을 하고 있다. 國家는 灌溉制度를 設立하고, 調整한다. 古典的인 封建制度下에서는 封建領主가 이러한 機能을 하지만, 이 경우에 國家는 아무런 經濟的 役割도 하지 않는다. 바르가는 이와 같은 理由로 「아시아的 生產樣式」이 古典的인 封建制의 生產樣式과는 區別되는 生產樣式의 하나라 보고, 요르크나 고데스의 解釋를 비판한 뒤, 과연 歷史上에 그러한 生產樣式이 存在했는가 하는 問題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課

題라고 叙述하고 있다.<sup>(16)</sup>

한편 프랑스에서는 『빠세』誌(*La Pensée*)에 「아시아的 生產樣式」에 관한 特輯號가 발간된 이래 이 문제를肯定的으로 그리고 새로운 次元에서 다루어 보려는 여러가지 見解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植民地以前의 热帶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및 기타 세계제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한 이들은, 「아시아的 生產樣式」概念의 有用性을 높이 평가하는 견해를 제출한 것이다. 이리하여 「아시아的 生產樣式」은 종래에는 주로 中國, 印度 등의 아시아 國家에만 限定되어 있던 것이, 그 問題領域이 擴大되어 全世界的인 것으로 되었고, 이에따라 「아시아的 生產樣式」의 世界史의in 普遍性에 관한 問題가 提起되게 된 것이다.

퇴케이(F. Tökei)에 의하면 이와 같은 「아시아的 生產樣式」社會는 「原始社會로 부터 나온 部族的 共有를 기초로 하는 階級社會」이고<sup>(17)</sup>, 쉐노에 의하면 「村落共同體의 生產活動과, 이들 共同體를 지도하면서 동시에 摧取하는 國家權威의 經濟的 干與의 組合」<sup>(18)</sup>으로 규정된다. 나아가 쉐노는 종래 國家의 中요한 經濟的 機能으로 간주되어 온 灌溉의 領域에도, 土地利用에 있어서 輪番制의 統制, 道路의 維持와 그 安全性의 管理, 村落의 軍事的 保護, 農民共同體의 能力を 초과하는 鐵山, 冶金 등의 手工業生產도 國家의 機能의 一部로 포함시킴으로써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단순한 地理的 條件에만 結付시키는 諸見解들을 拒否했다.<sup>(19)</sup> 고드리에(M. Godelie)는 「아시아的 生產樣式」의 社會는 無階級社會에서 階級社會로 移行해 가는 過渡期에 固有한 社會組織形態라고 본 후, 이러한 社會는 종래 생각되어 온 것보다 더 큰 歷史的・地理的 普遍性——즉 컬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諸帝國, 아프리카의 諸王國, 미케네王國——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두가지 類型으로 區別한다. 하나는 大規模的인 (公共)事業을 수반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事業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兩者에 있어서 基本的인 것은, 國家權力を 掌握하고 社會의 다른 構成員들의 勞動의 一部分을 占有함으로써 이들 成員을 摧取하고 있는 種族制의 貴族들의 存在란 것이다.<sup>(20)</sup>

이들 諸見解는 「아시아的 生產樣式」의 發展에 대해서도 极히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드리에는 종래 忘却되어 온 發展의 多樣性이란 假說을 다시 檢討해보지 않으면 안된다고前提한 뒤, 「아시아的 生產樣式」의 發展과 崩壞에는 2가지의 可能한 길이 存在한다고 假

(16) E.S. Varga, 「아시아的 生產樣式에 대하여」, 福富正實編譯, 上揭書, pp. 11-30 參照.

(17) F. Tökei, "Le Mode de Production Asiatique dans L'œuvre de K. Marx et F. Engels," *La Pensée*, No. 114, 1964, (本田喜代治編譯, 『アジア的生産様式の問題』, 岩波書店, p.34)

(18) J. Chesneaux, "Le Mode de Production Asiatique: Quelques Perspectives de Recherche," *ibid.*, (上揭書, p.78)

(19) *Ibid.*, 上揭書, p.80 參照.

(20) M. Godelie, 福富正實編譯, 前揭書, pp.33-36 參照.

定하고 있다. 第一의 길은 그리스·로마의 길로서, 「아시아的 生產樣式」으로 부터 私的所有와 商品生產에 기초를 둔 奴隸制의 生產樣式으로 發展하는 길이고, 第二의 길은 中國의 길로서, 私的所有의 發展을 특징으로 하는 奴隸制의 段階의 發展이나 商品生產의 發展을 수반하지 않고 一定形態의 封建制度로 發展해가는 길이다. 웨노의 견해도 細部의 側面에서는 약간 다른점이 있지만, 대체로 아시아社會는 「아시아的 生產樣式」段階이 후에 封建的 生產樣式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홉스보움(E.J. Hobsbawm)은 『經濟學批判』의 序文에 나오는 「아시아的·古代的·封建的 및 近代 브르조아的」이라는 귀절을 「歷史의 단순한 單線的 見解나 모든 歷史는 進步한다는 단순한 견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21)</sup>라고 해석하면서, 「아시아的 生產樣式」에서 封建制度(農奴制)가 발전할 가능성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sup>(22)</sup>

이렇게 하여 再燃된 논쟁은 그 이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채롭게 전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비트킨(M.A. Vitkin)의 설명에 따르면, 1965年은 이 再開된 논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그는 그 이후의 논쟁의 전개과정을 대별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sup>(23)</sup>

첫째 유형은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初期奴隸制社會로 보는 스트루베의 見解이다. 스트루베는 前述한 슈페까날이나 고드리에의 見解를 批判하면서 다음과 같은 說明을 하고 있다. 즉 「아시아的 生產樣式」은 原始共同體社會崩壞의 必然的 歸結은 아니고 一定한 條件이 存在하는 경우에만 發生하는 것이다. 이 條件은 灌溉와 같은 自然的 條件이며, 따라서 그는 이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世界史의 普遍性을 갖는 一段階로 規定하는데 反對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灌溉組織의 創出을 위해서는 大規模의 勞動力의 動員이 必要한데 이 勞動力은 隸屬民이나 奴隸를 強制함으로써 충당하고 나아가 이 奴隸는 예컨대 神殿에 의해 集團的으로 所有되는 것으로 보아, 궁극적으로는 「아시아的 生產樣式」段階은 原始共同體社會에서 階級社會로 移行하는 過渡段階이면서 奴隸가 큰 役割을 하는 初期奴隸制社會라는 見解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둘째 유형은, 니키후로브(V.N. Nikiforov)에 의해 代表되는 「發展된 奴隸所有制說」이다. 그는 公式에 대한 재검토가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奴隸制體制에 관한 현재의 견

(21) E.J. Hobsbawm, (市川泰治郎譯, 『共同體の經濟構造』, 未來社, p.42)

(22) 上掲書, p.36

(23) シンポジウム, 「アジア的生産樣式論をめぐって」(I), 『アジア經濟』, アジア經濟研究所, 1973, Vol. 14, No. 5, pp. 13—14 參照。

(24) V.V. Struve, 福富正實編譯, 前掲書, pp. 36—42 參照,

해들이 不滿足스럽더는데 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奴隸制社會概念은 너무 單純하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多數의 諸事實을 說明하는데는 불충분하다. 古代의 소위 奴隸制的 諸國家에서 直接生產者の 大多數를 구성하는 것은 奴隸가 아니라 國家에 의해 摧取되는 共同體構成員으로서의 農耕者였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奴隸制의 概念을 더욱 發展시켜 그 內容自體를 修正 또는 豐富化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sup>(25)</sup>

셋째로는 다니로바(L.V. Danilova), 세미노브(U.I. Seminov) 등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初期階級社會說」이다. 그는 古代東洋에 있어서 生產者와 生產手段의 基本的인 結合樣式은 奴隸制, 封建的 隸屬 및 雇傭勞動의 諸指標를 對立的으로 結合시킨 摧取形態 즉 既知의 모든 敵對的인 諸生產樣式을 潛在的으로 包括하는 未分割・未分化 그대로의 獨自的인 生產樣式이라고 파악한다. 그는 初期階級社會의 性格을 이와 같이 인식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接近方法을 모색하는데 특징이 있다.

넷째의 유형을 취하는 代表的인 論者로는 바실리에브(L.S. Vasiliev)와 스투체흐스키(I.A. Stuchevskii)가 있으며, 이들은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위의 세미노브의 경우와는 달리, 奴隸制와 封建制가 未分割된 그대로가 아니라 뛰어이 區分된 形態로 혹은 並存하고 혹은 混合해 있는 社會로 看做하고 있다. 즉 그들은 自然的 諸要因과 같은 여러가지 要因에 의해 原始共同體의 性格이 각각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요인은 第一次的 社會構成體인 原始共同體社會로부터 第二次的인 어떤 社會構成體로 轉換해 갈때 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가능한 세 가지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原始共同體制度의 隸屬이 발생하는 그리스·로마型 모델이 그 첫째요, 農奴制의 隸屬이 발생하는 게르만型 모델이 그 둘째요, 위 두가지의 隸屬形態가 長期的으로 並存하고 密接한 關聯을 가지면서 서로 作用하고 있는 아시아型 모델이 그 셋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世界史的으로 볼 때 그리스·로마型의 發展經路와 게르만型의 發展經路가 並列的으로 存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개의 傾向이 長期的으로 並存하면서도 결국에는 奴隸制의 構成體 혹은 封建制의 構成體로 移行해가는 第3의 經路인 아시아型 모델도 存在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sup>(26)</sup>

다섯째의 유형으로는 로모딘, 우리야노브스키의 견해이다. 이들은 소위 「永遠한 封建制說」이라고 불리우는 고데스나 요르크의 견해와 거의 흡사하다. 즉 아시아社會에는 여러가지

(25) V. N. Nikiforov, 福富正實編譯, 上揭書, pp. 269—293 參照.

(26) L.S. Vasiliev & I.A. Stuchevskii, 福富正實編譯, 上揭書, pp. 195—213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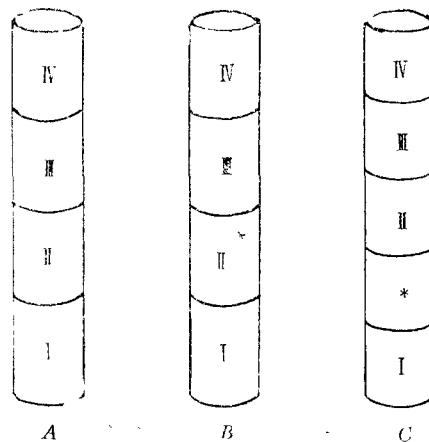
發展段階가 있기는 해도, 특히 封建的인 要素가 계속 支配的 形態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트킨의 分類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아시아的 生產樣式」에 관해 빠뜨릴 수 없는 견해는 테르아코프얀(I.B. Ter-Akopyan)의 「農業共同體制度論」이다. 그는 「아시아的 生產樣式」이普遍的 發展段階라는證明을 農業共同體制度를 통해 이루어 보려고 시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強調하고 있다. 마우러(G.L. von Maurer)의 著書가 出現함에 따라 「아시아的 生產樣式」이란 用語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 社會發展이 아시아的 發展에 대립하는 것처럼 간주되어 온 유럽 자체에서도, 「아시아的 生產樣式」의 基本細胞를 構成하고 있던 農業共同體가 存在했다는 證據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는 共同體는 急速히 解體하고 消滅해 버렸다. 따라서 集團的 所有形態와 共同體가 過去에는普遍的으로 普及되어 있었고, 바로 이러한 農業共同體를 「아시아的 生產樣式」概念에 對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up>(27)</sup>

敘上한 바와같이,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둘러싼 여러가지 見解의 대립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골라 보더라도, 각 見解마다 조금씩 立場이 다르고 그 見解가 各樣各色이었다. 이제 이러한 論爭을 社會發展段階의普遍性과 特殊性이라는 축면에서 再整理하여 이를 進化樹(evolution tree)<sup>(28)</sup>의 形式을 빌어 대략 圖示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게 된다.

#### 社會發展論의 諸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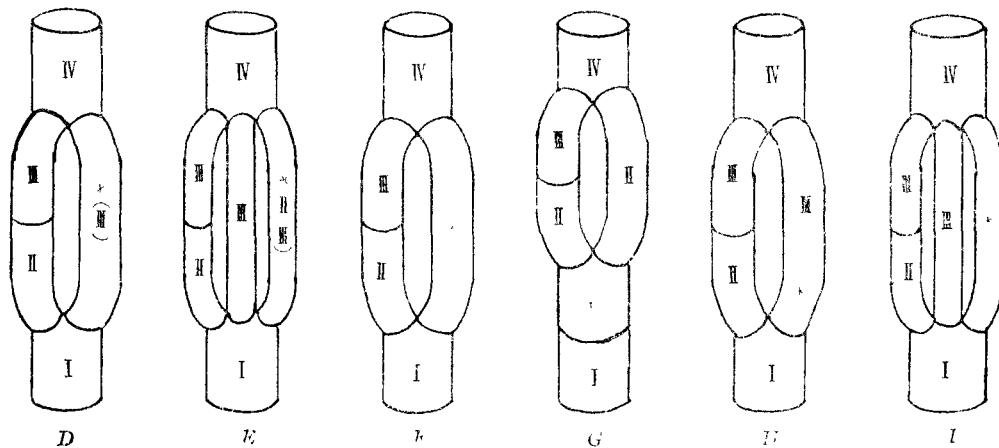
##### (가) 單線的 社會發展論의 類型



(27) I. B. Ter-Akopyan, 福富正實編譯, 上揭書, pp. 51—91.

(28) R.L. Carneiro, *op. cit.*, p.102. 여기에는 單線的 進化와 多線的 進化의 結合關係가 例示되고 있다.

## (나) 多線的 社會發展論의 類型



## &lt;凡例&gt;

- I. 原始共同體的 生產樣式
- II. 奴隸制的 生產樣式
- III. 封建制的 生產樣式
- IV. 資本制的 生產樣式
- \* 아시아的 生產樣式

(가)의 單線的 社會發展論에서 보면 A, B, C 세가지 類型의 見解가 있다. 물론 그 각각이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獨自的인 生產樣式으로 認定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A, B의 그룹과 C의 그룹이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 類型은 人類社會의 모든 民族의 歷史가 世界史的인 普遍性을 갖고 一律的으로 發展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서는 모두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A의 類型은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獨自的인 生產樣式으로 認定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B類型과 同一하지만, 그것을 初期階級社會 혹은 原始共同體社會의 崩壞過程에서 나타나는 過渡期의 類型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서는 B類型과 區別될 수 있다. B類型에서는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初期奴隸制社會 혹은 發展된 奴隸制社會로 취급하며, 각 論者사이에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古典的인 奴隸制社會의 아시아的一變種으로 본다는 점에서 A 및 C 類型과 區分될 수 있다. C類型은 再開된 「아시아的 生產樣式」論爭에서 論議의 焦點으로 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아시아的 生產樣式」이 世界史的인 普遍性을 가지고 있는 獨自的인 生產樣式으로서 原始共同體社會의 解體와 奴隸制社會의 成立사이에 存在하는 하나의 段階로 취급되고 있다.前述한 論議에서 보건데 A 類型의 입장은 취하는 論者の 代表로서는 中國의 田畠五를 들 수 있고, B類型에는 스트루

베, 니키후로브 등을 C類型에는 日本의 鹽澤君夫<sup>(29)</sup>나 비트킨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多線的 社會發展論은 아시아의 歷史發展을 西洋의 歷史發展類型이나 段階와는 다른 것으로 취급하여, 아시아社會의 特殊性을 強調한다는 점에서 (가)의 單線的 社會發展論과는 區別된다. 그러나 多線的 社會發展論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로 둑어 놓았다하더라도, 이 중에는 單線的 社會發展論의 構想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음을 주의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시아社會에서는 奴制制段階가 存在했다 하더라도 그것 보다는 封建制的 生產樣式이 優勢하여 아시아社會를 「永遠한 封建制」段階에 있다고 생각하는 D類型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는 戰前의 고데스나 요르크 및 戰後의 로모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D類型은 아시아社會에 있어서의 奴隸制的 生產樣式의 意義를 積極的으로 評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單線的 社會發展論과 類似하다.

다음에는 아시아社會에서는 古代이래 奴隸制的 生產樣式과 封建制的 生產樣式이 뿐만이 区別된 채로 並存하고 있었다는 類型의 見解를 보자. 여기에는 바실리에브, 스트체후스키나아가 세미노브까지 포함시켜도 좋을 것이다. 이 E類型도 어떤 意義에서는 單線的인 歷史發展觀의 變型이라고 볼 수 있다.

F類型은 아시아社會의 特殊性을 특히 強調하고 있다. 바르가의 설명과 같이 이 社會는 극히 停滯의이며, 西洋의 社會와는 전혀 다른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G類型은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普遍的一段階로 생각하는 점에서는 C類型과 同一하나 이러한 「아시아的 生產樣式」段階 이후의 發展에 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즉 그 이후의 發展은 古典的인 奴隸制社會로 발전하거나 혹은 바로 封建的인 生產樣式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드리에나 쉐노의 입장이 대개 이 類型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H類型에서는 原始共同體社會 이후에 古典的 奴隸制社會로 發展하는 經路와 「아시아的 生產樣式」段階를 거쳐 封建制로 發展하는 類型이 並列的으로 存在한다고 보고 있다. 이 類型은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고드리에나 쉐노와는 달리 그렇게 普遍的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며, 「아시아의 生產樣式」段階 이후에는 封建制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G類型과는 區別된다. 흡스보움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I類型은 原始共同體社會 이후의 發展經路를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생각하

(29) 鹽澤君夫氏의 見解는 大塚久雄氏의 方法論을 그대로 追從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大塚久雄, 『共同體の基礎理論』, 岩波書店, 1955, p.3 및 鹽澤君夫『古代專制國家の構造』(增補版), 御茶の水書房, 1962, p.4 參照.

고 있다. 즉 原始共同體社會의 解體 이후에는 그리스·로마的인 古典古代的 發展經路와  
게르만的인 經路 및 아시아的인 經路의 세 가지 經路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테르아코피안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I*類型은 *E*類型과는 달리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獨  
自的인 生產樣式으로 取扱하고 있다.

#### IV. 韓國古代社會經濟史理論의 類型

韓國古代史研究에 社會經濟史的 方法이 맨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白南雲氏에 의해서 였다. 그런데 이 白氏의 方法은 소위 西洋의 「公式主義」를 韓國史에 機械的으로 適用하는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西洋의 公式을 韓國史에 그대로 適用할 수 있기 위해  
서는 모든 人類의 歷史가 同一한 段階를 거쳐 發展해 나간다는 歷史發展의 普遍性에 관한  
假定을 承認하지 않으면 안된다. 白氏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즉

「우리 朝鮮의 歷史發展의 全過程은 예를들어 地理的 條件, 人種學的 骨相, 文化形態의  
外形的 特徵 등 다소의 差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外觀的 特殊性은 다른 文化民族의  
歷史發展法則과 區別될 수 있는 獨自的인 것은 아니고, 世界史的인 一元論의 歷史法則에  
의해, 다른 여러 民族과 同一한 軌道의 發展過程을 거쳐온 것이다. 그 發展過程의 緩慢  
한 템포, 文化諸狀의 特殊한 濃淡등은 결코 本質的인 特殊性은 아니다.」<sup>(30)</sup>

韓國史의 普遍性과 特殊性에 대한 이와 같은 認識下에서 「朝鮮民族의 社會的 存在를 規定했던 各 時代에 있어서 經濟組織의 內面的 關聯, 內的 矛盾의 發展 및 거기에서 생기는  
生產關係의 繼起的 交代의 法則性과 不可避性을 科學的으로 論證하는 것」이 그의 研究對象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方法에 따라 韓國史를 時代區分하여 「朝鮮民族의 出  
發點이라고 할 原始氏族共產社會, 三國(高句麗·百濟·新羅)鼎立時代의 奴隸經濟, 新羅統  
一期 아래 최근에 이르기 까지의 아시아的 封建制, 現재 進行중인 商品生產制」이 네 가지  
社會的 構成의 繼起的 交代로 把握하고 있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白氏의 見解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論難이 있었다. 「史料批判의 不完全, 그  
대담한 推論과 結論에의 飛躍, 마르크스主義公式의 固守, 모르간·엥겔스의 方法에의 固定的  
的 傾向, 이런 것들은 同書의 批判의 對象이 되었다.」<sup>(32)</sup> 그러나 白氏의 見解에 있어서 肯

(30)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1933, p.9

(31) 白南雲, 上揭書, pp.10—11

(32) 金容燮,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敘述」, 『歷史學報』, 第31輯, 1966年 8月, p.141

定의인 側面도 많이 있었다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출한 事實의 羅列이 아니라, 이 事實을 전체적인 體系속에서 總體의으로 把握하고자 하는 그의 試圖는 그 이후의 韓國史研究方法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렇다 할 代替的인 理論(alternative theory)이 確立되어 있지 못했던 狀況하에서 古典的인 著書로 되었던 것이다.

白氏에 뒤이어 나타난 李清源, 李北滿氏들의 見解가 이러한 公式主義의인 見解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최근의 金三守, 姜晉哲教授의 立場도 이 公式主義의인 構想을 깊히 念頭에 두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見解가 모두 公式主義를 念頭에 두고 있다는 것이, 具體的인 事實에 대한 각자의 認識이나 概念規定, 나아가 時代區分上의 時期등이 모두 合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李北滿氏는 三國時代를 奴隸制社會로 규정하기는 하지만, 白南雲氏의 說明은 耕作勞動에 있어서 奴隸勞動의 優勢가 確認되지 않기 때문에 誤謬라고 못 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家財政의 唯一한 基礎가 租稅=地代였다는 이유로 이것을 封建制로 規定하려는 全錫淡氏의 見解도 마찬가지로 否定하면서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典型的으로 發展한 나라의 奴隸制와 朝鮮과 같이 崛起으로 發展한 奴隸制와를 區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비로소 耕作勞動에 있어서 奴隸勞動이 主要한 役割을 하지 않았더라도 奴隸制가 成立되었었다고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sup>(33)</sup>

………三國은 각각 氏族共同體로부터 發展하여 近隣諸部族을 征服하는 한편, 그들로부터 征服者共同體로서의 資格으로 貢納을 強要하였으며 이것은 다시 氏族內部의 階級分化로 인하여 각각 自己의 共同體内部의 被支配階級에게까지 擴大되었다. 그리하여 征服者共同體는 土地를 共有하고, 租稅形態로 貢納시키는 地代는 그들 征服者=支配層의 共同所有로 되어 國家財政을 充當하고 그들의 支配體制를 維持하게 하는 物質的 基礎로 하였다. 그러므로 支配階級은 抽象的인 國家도 아니고 東洋的君主 한 사람도 아닌 國家에 組織된 征服者=權力者の 一群이며, 被支配=被榨取階級은 征服당한 他部族의 氏族員 또는 征服者=共同體內에 있던 貧民群이었다. 이와같이 筆者は 三國鼎立時代의 土地所有關係와 그 支配關係를 奴隸制로 規定하는 바이다. <sup>(34)</sup>」

이와 같은 李氏의 韓國古代에 대한 理解는前述한 고바레브의 見解와 흡사하다. 고바레브는 生產手段의 集團的 所有와 이를 통한 農業共同體의 集團的 榨取를 初期에는 「아시아

(33) 李北滿, 『李朝社會經濟史研究』, 大成出版社, 1948, p.30

(34) 李北滿, 上揭書, pp. 31-32.

的 生產樣式」段階로 把握했으나 後期에는 이것을 奴隸制의 變種으로 取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見解는 戰前에 日本의 「아시아的 生產樣式」論爭에 있어서 早川二郎이나 秋澤修二의 見解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sup>(35)</sup>

金三守教授도 마찬가지로 公式主義的 理論과 별로 큰 差異가 없는 見解를 主張하고 있다.<sup>(36)</sup> 時代區分上에 있어서는 古代 즉 奴隸制社會를 다른 論者들과는 달리 三韓 및 夫餘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가 設定하고 있으며 三國時代부터는 封封建制社會로 規定하는데 特徵이 있다. 金教授는 夫餘社會를 奴隸制社會로 規定하면서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共同體的 見地에서는 아시아的 共同體의 崩壞過程에서 始作하여(夫餘), 奴隸制社會의 各段階樣式 즉 東方奴隸制=家內奴隸制의 諸段階(夫餘・辰國)의 存在, 生產에 있어서 鐵器使用과 交易에 있어서 鐵貨의 使用, 交通經濟의 廣範性(辰國), 中國과의 外交使臣의 往來, 金 時期에 걸친 民族的 抗爭(高句麗・濶貊・馬韓), 高句麗 下戶의 農奴的 性格, 夫餘 邑落에 있어서의 豪族의 私有의 擴大에 의한 封建地主化 등이 모두가 紀元2—3世紀까지의 奴隸制社會를 뜻하고 紀元 2—3世紀 以後에 成立되는 封建社會의 諸要素가 奴隸制社會의 胎內에서 發生하기 始作한 것은 대체로 紀元 1世紀 前後라고 생각되는 것이다.」<sup>(37)</sup>

金教授의 主張에서도 韓國古代에서는 古典的 奴隸制는 存在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金教授는 家內奴隸制를 古典的 奴隸制의 未發達된 狀態로 把握하여 前者를 奴隸의 概念規定에서 排除해 버리는 李北滿氏의 見解를 批判하면서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東方的 奴隸制=家內奴隸制의 認定으로써 奴隸制概念이 오로지 古典的 奴隸制에 끝였던 過去論爭의 대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東方的 奴隸制는 막스 웨버나 또는 最近의 아·이·튜메네프가 認定한 것과 같이 家內奴隸制 또는 家父長的 奴隸制自體가 古典的 奴隸制와 같이 生產的 基礎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認識해야 하고 奴隸制의 時代가 韓國史上 三國時代가 아니라 三國以前時代에 있어서 그 肯定과 否定이 討議되어야 한다는 것을 提起하고자 하는 바이다.」<sup>(38)</sup>

그린데 이와 같은 金教授의 「東方的 奴隸制」에 대한 見解는 그 構想의 本質的인 側面에

(35) 鹽澤君夫, 『アジア的生産樣式論』, p.15

(36) 金三守教授의 見解는 주로 다음의 論文을 參照함.

『韓國社會經濟史』, 『韓國文化史大系 Ⅱ』, 政治·經濟史(上),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65.

『古代夫餘의 社會經濟構成と 土地私有의 存在形態』, 『淑明女大論文集』, 7, 1968.

(37) 金三守, 『韓國文化史大系 Ⅱ』, p.606—607

(38) 金三守, 上揭書, p.612

서는 대체로 투메네프(A.I. Tyumenev)의 見解와 合致하고 있다. 투메네프는 河川文化地方(에짚트·메소포타미아)과 古典文化諸國(그리이스·로마)의 土臺와 上部構造現象의 性格을 比較한 후 「東方의 奴隸所有者的 社會와 古典的 奴隸所有者的 社會의 社會構成 및 歷史의 運命의 差異는 결코 段階的 差異로만 둘려질 수는 없고 發展經路의 差異임」<sup>(39)</sup>을 明白히 했다.

「土臺의 特殊한 性格 즉 本來의 奴隸勞動과 더불어 現地住民을 廣汎하게 摧取했다는 사실이, 上部構造現象(政治的 上部構造現象으로서의 國家의 專制的 性格, 이데올르기 分野에서 宗教的 說教의 支配)뿐만 아니라, 古典古代와 전혀 다른 發展經路를 條件자웠다.」<sup>(40)</sup>

투메네프에 의하면 奴隸制의 發展諸經路의 差異는, 궁극적으로는, 이들 諸國의 自然的 諸條件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주로 灌溉事業). 國家는 灌溉事業의 全體의인管理者이기 때문에, 모든 灌溉地에 대한 所有權이 점차 國家에 歸屬되었다. 그 결과 本源의으로 자유로웠던 共同體員들이 專制者에 隸屬하고, 또 그 주위에 集團을 이루어 온 支配階級에도 隸屬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技術水準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이 隸屬은 奴隸的 隸屬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었고, 따라서 東洋에서는 「總體的 奴隸制」가 發生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투메네프는 古典古代의인 奴隸制 즉 發展된 奴隸制에 대응하여 東洋에서는 「總體的 奴隸制」가 主要한 形態로 나타났고, 보통 생각되어 온 것처럼 初期의인 未發達된 奴隸制에서 發達된 奴隸制를 거쳐 封建制로 移行한다는 생각에는 反對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는 東洋의인 奴隸制에서 바로 封建制로 移行할 수 있는 可能性을 종래와 같은 非彈力의 奴隸의 概念을 擴充함으로써 解決하고자 한 것이다.

敘上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金教授나 투메네프 모두가 奴隸制概念의 彈力의인 適用과 아시아 古代社會의 特殊性을 強調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奴隸制社會와 封建制社會란 圖式을 고수하고 있고, 그리하여 公式主義의인 見解의 태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公式主義의인 歷史發展段階說의 입장을 취하는 또 하나의 見解로서 姜晉哲教授의 說을 들 수 있다. 즉

「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古代的·中世的·近代的 社會構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三國時代 以來 高麗中期의 武臣執權까지가 대체로 古代奴隸制의 社會였고 武臣執權

(39) A. I. Tyumenev, 「古代東方과 古典古代」(香山陽坪譯編, 『奴隸制社會の諸問題』, 1958, p.269)

(40) A. I. Tyumenev, 上揭書, p. 314

期以後 高麗末期에 이르는 時期가 古代的 社會에서 中世的 社會로 轉換하는 過渡期의 傾斜期였으며, 李朝時代가 中世封建社會였다고 본다.」<sup>(41)</sup>

姜教授는 「三國時代 以來 李朝末期에 이르기까지의 基本的 生產關係는 國家權力 對 農民의 支配·隸屬의 形式을 通해 나타났다」고 보지만, 이러한 支配·隸屬關係를 單純化하여 「一律的으로 封建制社會라고 理解하는데는 無理가 있다」고 하면서, 社會經濟的 關係를 通해 이 것의 性格을 規定지우려고 생각하고 있다.<sup>(42)</sup> 즉 姜教授의 경우에는 韓國의 古代에 古典的 形態의 奴隸制는 成立할 수 없다는데 同意하고 있지만, 農民이 國家로 부터 收奪당하는 負擔(租稅·貢賦·力役)의 內容이 變化하고 있다는 사실에 着眼하여, 「農民이 그들의 勞動力を 媒介로 人身의 收奪을 당하는 社會는 古代奴隸制의 社會며, 土地를 媒介로 地代의 形態를 通하여 收奪을 당하는 社會는 中世封建的인 社會다」<sup>(43)</sup>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姜教授의 입장은 자신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前田直典氏의 見解에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나아가 日本의 中國史家인 西嶋定生氏의 見解와도 아주 비슷한 것이다.<sup>(44)</sup>

崔虎鎮教授의 古代史把握方法은前述한 李北滿氏의 見解와 아주 비슷하다. 崔教授는 三國時代의 被支配階級을 두 개의 形態로 나누어 被征服民과 轉落된 小農民層을 들고 있으며 支配의 側面에서는 共同體라는 集團에게 權力이 集中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支配體制下에서는 共同體를 單位로 하는 集團的 貢納關係가一般的이 있다고 叙述하고 있다. 그런데 崔教授는 여기서 「이러한 支配關係 및 收取關係하에서는 生產勞動의 支配的 擔當者는 奴隸가 아니라一般的 配被支階層으로서의 被征服民과 自由小農民層」이 있으며 「우리의 古代社會는 古典古代的 奴隸制社會와는 區別되는 東洋的 古代社會(즉 總體的 奴隸制社會)라 規定」하여, 대체로 韓國의 古代를 奴隸制變種說에 가까운 理論傾向을 취하고 있으나 分明하지는 않다.<sup>(45)</sup>

敘上한 바와 같이 李北滿, 金三守, 姜晉哲, 나아가 崔虎鎮教授에 이르기 까지의 大部分

(41) 姜晉哲, 「韓國史의 時代區分問題에 대하여」, 『歷史學報』, 第31輯, 1966年 8月, p.164.

(42) 姜晉哲, 上揭論文, p.164 參照.

(43) 姜晉哲, 上揭論文, p.165.

(44) 西嶋定生氏는 奴隸制를 다음과 같이 解釋하고 있다. 「………(自己의 土地를 가진) 農民을 除外하고는 當時의 階級構成은 생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農民은 皇帝를 頂點으로 하는 國家權力에 의해 支配된 者들이고 ………土地의 稅를 낸 뿐만 아니라, 一人一人이 徵役을 지는 支配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경우, 貧富의 差別에 의해 負擔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同一한 負擔을 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時代는 農民이 土地를 갖고 있다가 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一定한 勞動力を 갖고 있다는 것에 의해 國家에 支配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支配形態를, 아시아에 나타난 奴隸制의 一形態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鈴木 俊, 西嶋定生編, 『中國史の時代區分』, 東京大學出版會, 1957, p.21

(45) 崔虎鎮, 『韓國經濟史』, 博英社, 1970, pp. 38—40 參照.

의 學者들이 비록 奴隸制를 把握하는 方法上에서는 다소의 差異가 있기는 해도, 公式主義의 見解를 追從하고 있으며, 韓國古代를 奴隸制의 아시아的 變種으로 看做하는데는 共通點이 있는 것이다. 前節에서 圖示한 바의 類型別로 볼 때, B類型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韓國史를 西洋中心의 公式主義에서 약간 벗어난 입장에서 취급해 보려는 試圖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典型的인 例가 全錫淡氏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sup>(46)</sup> 그는 흔히 奴隸制社會로 규정되는 「三國時代에 있어서도 奴隸勞動이 支配的인 勞動形態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證據로 「朝鮮 經濟 社會의 發展過程은 嚴密한 意味의 奴隸社會란 것은 存在하지 않았다」고 본다. 나아가 그는 엔겔스의 封建制度成立의 두가지 經路를 論據로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즉 「하나는 <原始共產社會——奴隸社會——封建社會>의 典型的 發展經路이고, 다른 하나는 <原始共產社會——封建社會>의 發展經路다. 우리 朝鮮社會의 經濟的 發展樣式은 앞서 본 바와 같이 第二의 範疇에 속한다.」 이와 같이 韓國古代는 奴隸制社會를 經過하지 않고, 「土地私有의 缺如, 基本의 經濟細胞로서의 家父長制의 家族, 以前에는 共同體의 役員이었던 者가 貴族·官僚·祭司 等等으로 轉化하여 그 支配機關으로서 國家形態를 取하게 된 專制主義——이것이 獨特한 變異 또는 未發展의 形態에 있는 農奴主的 構成의 特質」인 그러한 社會로 바로 移行해 갔다는 것이다. 이 見解는 D類型에 속하는 것으로 고데스나 요르크의 立場과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韓國古代의 發展經路를 약간 強力的으로 取扱해 보려는 見解는 朴時亨氏의 見解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三國時代의 社會構成을 三國이 제각금 다 獨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高句麗·百濟는 古代奴隸制的 社會構成을 經由하였으나 新羅만은 이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封建制的 社會構成으로 飛躍하였다는 見解」<sup>(47)</sup>를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全錫淡氏나 朴時亨氏의 見解에 있어서도, 韩國古代를 새로운 生產樣式의 概念으로서 說明하는 것이 아니라, 既知의 西洋에서 借用되어온 生產樣式의 變型과 飛躍으로서 說明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公式主義의in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姜晉哲教授는 崔虎鎮教授의 見解가 奴隸를 中心으로 하는 意識 밑에서 展開된 것이라 보고 있다(姜晉哲, 「韓國土地制度 史上」, 『韓國文化史大系 Ⅱ』, 政治·經濟史(下), 1965, p.1222, 註 2 參照). 또한 東洋의 古代社會를 總體的 奴隸制社會로 보는 것은, 戰前의 論爭에 있어서 이 概念의 發見을 통해 스트루베의 奴隸制度種說이 有力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奴隸制社會로 봄이 마땅할 것이다.

(46) 全錫淡, 『朝鮮經濟史』, 博文出版社, 1949, pp. 20—34 參照.

(47) 姜晉哲, 「韓國史의 時代區分問題에 대하여」, 『歷史學報』, 第31輯, 1966年 8月, p.162.

## V. 結 語

本稿는 앞에서의 考察을 통해 「多線發展論」의 研究段階上의 對象이 第一의 方法에서 第二의 方法으로 轉換하는 過程에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 「多線的 社會發展論」은 西洋의 歷史的 經驗을 토대로 한 종래의 公式主義的인 見解를 아시아史에 適用함에 있어서, 公式과 事實사이의 乖離가 상당히 심각한 形態로 表出됨에 따라, 이러한 乖離를 除去하기 위한 새로운 構想이 어떠한 形態로 展開되고 있는가를 극히 簡略하게 取扱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韓國古代史에 있어서 社會經濟史學的인 方法의 類型을 이러한 分析의 結果에 비추어 대략 言及했다.

그런데 이처럼 概括的인 分析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韓國古代史研究方法에 대한 상당히 有用한 展望이 提示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종래의 韓國古代史研究에 있어서 社會經濟史學的인 方法은 지나치게 公式主義的인 見解에 얹매여 있었고, 이 方法내에서 發展되고 있는 새로운 理論을樹立하기 위한 諸試圖를 批判的으로 消化・吸收하는데 소홀했다는 점을 指摘할 수 있다. IV節의 分析에서 본 바와 같이 韓國古代史의 理論類型은 *B*類型이 거의 大部分이었고 *D*類型이例外的으로 存在할 뿐인 것이다. 물론 韓國古代史에 대한 社會經濟史學的 研究方法이 이처럼 公式主義的인 見解 一色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에는 순수한 學問的인 次元이외의 여러가지 要因이 作用하고 있음에 틀림없겠지만, 그러나 「아시아的 生產樣式」과 같이 극히 重要的한 問題에 대해 本格的인 研究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遺憾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흔히 「아시아的 生產樣式」論은 아무런 열매도 열릴 수 없는 쓸데없는 論爭이라든가 停滯史觀과 결부되어 있다든가 하는 偏見 내지는 誤解가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다. 아시아 社會 특히 그一部를 이루고 있는 韓國社會의 古代의 性格을 究明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偏見이나 誤解를 除去하고, 담담하고 科學的인 態度로 歷史的인 事實에 과고 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경우에 이 「多線的 社會發展論」을 둘러싼 諸構想은, 可能한 하나의 構想으로서, 理論構成을 위한 하나의 指針으로서, 有用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多線的 社會發展」을 主張하는 많은 學者들 사이에서는 歷史的 環境과 더불어 自然的・地理的 環境이 生產諸關係에 대해 끼치는 影響을 상당히 중요하게 取扱하는 傾向이 있다. 물론 이러한 自然的・地理的인 要因, 예를 들어, 氣候, 물의 存否, 農業에 유리한 地域과 隣接해 있는가 아니면 牧畜만에 유리한 地域과 隣接해 있는가 하는 諸要因으로부터 社會的 發展을 結論 짓는 것은 理論的으로 容認하기 어렵다는 批判이 있다. 즉 批判者들은

地理的 要因으로 復歸한다는 것은 人間과 人間 사이의 生產關係의 變化를 指標로 하는 이 方法과 矛盾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이 自然的・地理的 要因이 生產樣式의 變化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칫하면 위트포겔(K.A. Wittfogel)과 같이 「地理的 決定論」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要因의 意義를 強調하는 사람들은, 이들 要因이 生產力의 發達에서 本質的인 側面인 生產過程에 있어서, 人間의 勞動對象의 性格을 變化시킴에 의해 生產力의 變化에 影響을 주고 이것이 다시 間接的으로 生產關係에 影響을 끼친다는 점에 注目하고 있다. 「아시아的 生產樣式」을 둘러싼 諸論議에서 는 이러한 自然的・地理的 環境 중에서 특히 灌溉에 수반된 諸現象이 關心의 對象으로 되어 왔지만, 灌溉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韓國史에서는 과연 어떠한 要因이 東洋的 專制國家, 共同體의 殘存등을 形成하게 했는가 하는 점을 더욱 자세히 研究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째로, 「多線的 社會發展論」은 아시아史를 아시아의 事實에 보다 더 適合하게 構成해 보려는데 하나의 目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努力은 종래 西洋中心의이고 公式主義의 見解를 무리하게 東洋 특히 韓國史에 適用함에 따른 여리가지 폐단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多線的 社會發展論」에서는 普遍性과 特殊性의 날카로운 對立關係가 어느정도 무마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折衝主義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네째로, 「多線的 社會發展」論은 종래의 單線의이고 公式主義의이었던 見解가 가지고 있는 缺點을 補完・修正하여 이 方法論 자체를 보다 完全한 것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東洋的 專制國家나 共同體의 뿌리깊은 殘存, 家內奴隸의 一般化 및 古典古代의 言意에 서의 奴隸의 缺如 등등의 諸現象이 抽象的 혹은 副次的인 要因이 아니라 具體的이고 基本的인 諸指標하에서 理論속에 包括되어갈 때 이 「多線的 社會發展論」은 종래의 公式主義가 가진 諸弱點을 補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多線的 社會發展論」에 포함되어 있는 諸構想들은 아직도 여전히 試論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까닭은 이 見解들이 理論의 論理性이라는 段階에서 시작되었기 보다는 오히려 實證的인 諸資料에 의한 公式主義의 批判에서 出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多線的 社會發展論」과 關聯된 諸構想이 理論으로서의 確固한 地位를 갖기 위해서는 理論의 側面에서의 嚴密性과 論理性을 아울러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려운 問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